

## EAI 여론분석센터

작 성 자

박원호  
서울대학교

이 메모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http://www.eai.or.kr)

## 대선결과에서 드러난 사회통합 과제의 중요성

선거결과 발표 후, 가장 많이 쏟아진 이야기 중의 하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사회통합의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진단이 있을 것이다. 대선 직후 진행된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회통합의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선 눈에 가장 띄는 대목은 패널 중 72.5%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매우 잘하거나(19.1%) 대체로 잘할 것(53.5%)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견 매우 높은 비율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지난 2007년 대선 직후 86% 이상이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 및 평가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이다.

### 정치적 희망을 보여야 하는 이유

통상 대통령 당선자들은 선거에서의 승리 직후 매우 높은 기대와 지지를 받게 되며(밴드웨건 효과) 이것은 정권 초기의 허니문 기간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5차 패널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처한 정치적 환경이 만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당선인을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아직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후보 지지자들 중 박 당선인이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반을 넘지 않았는데(47.2%) 이것은 73% 이상의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일을 잘할 것이라고 대답한 지난 17대 대선(EAI 2007 대선패널조사 자료)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비교되는 수준이다. 이것은 정치적 양극화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이 선거패배를 깨끗하게 승복하지 못하고 박근혜 당선인의 실패를 바라거나 야당이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아마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이들에게 정치적 희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박근혜 당선인은 ‘언제든지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을 포용하고 설득시키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반 만에 국정지지율의 폭락을 맞고 이후의 정책 수립과 국정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박 당선인이 취임 초기에 이상과 같은 반대의 목소리들을 최대한 듣는 등 정책적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풀어야 할 국정과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기대를 집값, 사교육비, 경제 양극화 완화, 노사갈등,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경제적 양극화 해소(32%)와 노사갈등 해결(28%)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가지 국정과제는 여·야 지지자 간 인식의 차가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 이러한 현안들에 있어 박 당선인의 해결 능력을 무엇보다도 취임 초기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 해소는 박근혜 당선인이 5년 전 이명박 당선인과 비교하여 상대적 열위에 놓여있는 유일한 이슈이기도 하다. ■

**[표 1] 박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전망(%)**

사례수 (명)	18대 대선 지지후보		17대 대선 지지후보	
	박근혜	문재인	이명박	정동영
대선 후보명				
매우 잘 할 것이다	34.0	4.7	42.1	4.3
대체로 잘 할 것이다	63.4	42.5	57.0	68.7
별로 못할 것이다	1.4	36.9	0.6	21.1
전혀 못할 것이다	0.2	13.4	0.1	3.8
모름/무응답	1.0	2.6	0.2	2.1

**[표 2] 국정과제별 긍정적 전망(%)**

	18대 대선 박근혜 당선인(B)	17대 대선 이명박 당선인(A)	(A)-(B)
가격안정	39.4	40.2	-0.8
사교육비	22.7	20.3	2.4
양극화문제	32.0	46.4	-14.4
노사갈등	28.9	39.6	-10.7
남북관계	25.7	22.0	3.7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대선패널조사" 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총선 1차 조사	총선 2차 조사	대선 1차 조사	대선 2차 조사	대선 3차 조사	대선 4차 조사	대선 5차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 대선5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12월 20 - 22일 (3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355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7%
패널유지율	67.8% (최초 패널 2,000명 기준)